



리서치센터 리포트
바로가기

투자심리 위축 지속되며 하락

삼성전자 실적을 통해 견조한 반도체 업황 확인
매도 압력 지속되며 양대 지수 하락 전환

주요 지표 일간 변동

KOSPI	KOSDAQ	KOSPI200
5,593.56pt (-1.23%)	644.78pt (-2.70%)	872.49pt (-1.66%)
달러-원 환율	韓 10년물 국채 금리	S&P500 선물
1,436.60 원 (-9.9 원)	4.3110% (+5.4bp)	7,363.50pt (+0.17%)

참고: 발간 시각 기준
자료: KRX

주요 수급 동향

	KOSPI	KOSDAQ	KOSPI200 선물
개인	-14,310 억	-1,105 억	+437 억
외국인	+13,456 억	+2,475 억	-2,954 억
기관	+659 억	-1,436 억	+2,128 억

참고: 발간 시각 기준
자료: KRX

KEY DRIVER

- 금일 국내 증시는 기업들의 호실적에도 투자심리가 회복되지 못하며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 오전 진행된 삼성전자 실적 컨퍼런스 콜을 통해 견조한 반도체 업황이 확인되면서 코스피가 장중 5% 이상 올랐으나, 고가 형성 후 한 시간만에 상승폭을 모두 반납했습니다. 이렇듯 시장이 호재를 반영하지 못하고 변동성이 확대되는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날 KOSPI는 1.23%, KOSDAQ은 2.70% 내렸습니다. KOSPI 거래대금은 약 37.6조원, KOSDAQ은 약 4.5조원을 기록했습니다.(KRX 기준)
- 외국인은 KOSPI를 약 1.3조원 이상 순매수했습니다. 외국인은 SK하이닉스와 SK스퀘어, 삼성전자를 순매수했고, 삼성전기와 SK이터닉스 등을 순매도했습니다. 한편, 기관은 KOSPI에서 수급적으로 특별한 방향성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기관은 셀트리온, 한화에너지로스페이스, KB금융 등을 순매수했고, SK스퀘어와 SK하이닉스, 효성중공업 등을 순매도했습니다.
- 업종별로 살펴보면, 화장품 업종이 실적 개선 기대감으로 상승했습니다. 삼성SDI 2분기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에 성공하면서 2차전지 업종이 동반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방산, 조선주도 반등했습니다. 한편, 삼성전자가 장기 공급 계약 확대와 메모리 공급 부족 전망을 제시하면서 반도체 업종이 강세를 보였으나, 매도 압력 이어지며 하락 전환했습니다. 삼성전기가 호실적 공개에도 불구하고 약세를 보였습니다. 전력기기 업종이 내림세를 지속했습니다.
- 주요 종목 중에선 LG생활건강(+11.03%), 아모레퍼시픽(+9.93%), LG에너지솔루션(+6.49%)이 올랐고, 삼성전기(-14.58%), LS ELECTRIC(-8.24%), SK하이닉스(-5.64%)가 내렸습니다.

Compliance Note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경, 대여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 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습니다.